

## 자연성 기흉에 있어서 액와개흉술과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비교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정경영·김길동·이두연·백효채·이재혁·홍윤주

1992년 1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자연성 기흉으로 액와개흉술(T군)과 비디오 흉강경 수술(V군)을 받은 113명과 1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환자의 추적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T군이 평균  $26.2 \pm 1.1$ 세, V군이  $24.3 \pm 0.8$ 세 이었다. 성별분포는 T군이 103:10, V군이 115:14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재발성 기흉이 T군에서 67명(59.3%), V군이 59명(45.7%)로 제일 많았으며 5일 이상의 공기유출, 단순흉부X선상 폐기포가 보이는 경우, 양측성 기흉 등의 순이었다. 2차성 기흉의 빈도는 T군이 21례(18.6%), V군이 11례(8.5%)였으며, 원인질환은 결핵과 폐기종이었다.

수술 후 흉관 거치기간의 비교는 T군이  $3.6 \pm 0.2$ 일, V군이  $4.1 \pm 0.3$ 일이었으며 두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수술시간의 비교는 T군이  $66.9 \pm 2.6$ , V군이  $72.9 \pm 2.9$ 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수술 후 퇴원일의 비교는 T군이  $5.2 \pm 0.2$ 일, V군이 평균  $5.6 \pm 0.5$ 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수술 후 통증의 비교로 비경구용 진통제의 투여횟수를 비교한 결과 T군이 평균  $2.4 \pm 0.2$ 회, V군이  $3.5 \pm 0.4$ 회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합병증의 발생은 T군이 11명(9.7%), V군이 13명(10.1%)로 통계적 차이는 없으며 합병증의 종류로는 5일 이상의 지속적인 공기유출이 T군과 V군에서 각각 7례로 제일 많았으며, 기흉의 재발이 T군에서 1례 V군에서 5례가 있었다. 늑막 삼출액이 양군에서 각각 1례씩 있었고 출혈과 흉관제거시 공기유입에 의한 기흉이 T군에서 1례씩 있었다. 수술 후 기흉이 재발에 대한 비교는 T군이 1례(0.9%), V군이 5례(3.9%)로, V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재발율을 보였다.

경제적 효율성의 비교로 진료비 총액은 T군이 136만원 V군이 294만원으로 V군이 약 2배가량 많이 나왔으며 본인부담금의 비교에서도 T군이 51만원, V군이 176만원으로 V군이 약 3배가량 많이 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